

지역 매아리

용지면, 복지사각지대 물품 전달

김제시 용지면(면장 조기문)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방문하여 필요한 물품을 확인하여 전달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김제시 용지면은 지난 11일 용지면장과 복지계 직원들이 기존에 가정방문조사 및 상담을 통하여 선별한 긴급지원물품 대상자의 집에 직접 방문하여 물품을 전달하였다.

이번에 지원받은 세대는 박용수(61세) 세대 등을 포함하여 총 6세대이며 전달 긴급지원물품은 세탁기, 전기밥통, 선풍기 등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였다.

조기문 용지면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이웃돕기성금, 긴급생계비 및 긴급지원물품 등 개개인 맞춤형복지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통하여 용지면 복지증진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경찰서 신풍지구대 공중화장실 비상벨 점검

김제경찰서(서장 박훈기) 신풍지구대(대장 김명곤)는 지난 12일 최근 불법촬영 등 여성악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40개소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민운동장 공중화장실 등 사람들의 왕래가 잦고 사용빈도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된 비상벨 정상작동 여부와 변기 주변 문, 천장 등 몰래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는 만한 곳을 점검하고 시정장치 고장유무 화장실 주변 CCTV 설치 여부까지 점검하였다.

이날 화장실 점검을 지켜보던 시민은 "최근 뉴스에서 피해사례가 많이 나와 공중화장실 이용하는 것조차 두려웠었는데 적극적으로 몰카, 비상벨, CCTV까지 점검하니 불안감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김명곤 지구대장은 "이번 점검은 범죄예방과 시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삼례문화예술촌 여행지로 거듭

한국관광공사 열린관광지 선정... 장애인 없는 여행 '만끽'

완주군의 대표관광지인 삼례문화예술촌이 장애인도 편하게 다녀갈 수 있는 열린관광지로 거듭나면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열린관광지는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객 누구나가 관광 활동에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지로 뜻한다.

완주군은 지난해 한국관광공사 공모 사업에 선정돼 열린관광지를 추진해왔고, 최근 새단장을 마쳤다. 우선 표지관 및 축지도를 설치했으며, 장애인 화장실 리모델링, 출입구 단차를 제거한 경사로 및 핸드 레일 설치로 장애인이 삼례문화예술촌을 관광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특히 책마을 문화센터 내 시각장애인용 점자책 비치 등 열린자료실을 조성하고, 성별, 연령, 장애 유무 등으로 인해 제약 받지 않도록 설계한 디자인인 유니버설



완주군의 대표관광지인 삼례문화예술촌이 장애인도 편하게 다녀갈 수 있는 열린관광지로 거듭나면서 주목받고 있다.

디자인 체험 제품 등 전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문화와 관광 향유 기회가 적었던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균등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인석 문화예술과장은 "삼례문화예술촌이 누구나 균등한 품으로 온 삶을 누릴 수 있는 무장애 문화관광지로 사랑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길 희망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청년 완주, 청년공간 2호점 문 연다

삼례 이어 고산면에 조성 예정

완주군이 삼례 플래닛 완주에 이어 고산면에 청년공간을 조성한다.

완주군은 지난해 문을 연 청년공간 1호점에 이어 고산면역에 청년공간 2호점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청년공간 2호는 청년들의 접근성이 좋은 고산면 읍내 상가건물 2층을 임대해 99.17㎡(30여평) 규모 공간으로 만들어질 계획이다.

청년공간은 완주군이 청년들이 모여 서로 교류·소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고산 청

년공간은 그 시작부터 청년들과 함께 하고 있다.

현재 완주군은 청년 15명이 참여한 청년공간 기획단을 구성해 공간 구성과 리모델링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고산 청년공간에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유 주방을 비롯해 커뮤니티 공간, 휴식공간, 공유책방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공간에서 청년들은 주거, 일자리와 같은 정보교류를 비롯해 쉽고 배움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간다.

특히 관내에 조성돼 있는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 등과 같은 문화시설과 협업해 청년들이 농촌에서도 재미나

게 놓고, 먹고, 일 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강광석 공동체협력과장은 "청년공간 조성은 더불어 완주형 단계별 주거지원 정책, 사회적경제 일자리확대 등 청년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종합적인 정책으로 청년들이 살고 싶은 완주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해 10월 삼례 게스트하우스 내에 청년공간 1호점인 '플래닛 완주'를 개소했으며, 이곳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교육과 문화행사, 청년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통해 5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 보건소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일'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예비부부 및 임신 중인 부부 10쌍을 대상으로 2018년 2분기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두 시간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프로그램은 평일에 시간을 내기 힘든 맞벌이 임신부와 예비아빠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토요일에 운영하여 참여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부모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 신생아 관리 및 모유수유 방법 등을 실

습해본다. 또한 예비아빠가 6.5kg 무게의 임신 체험복을 착용해보며 체중 증가 등 임신 중 신체 변화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임신부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통해 행복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맞춤형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저출산율 극복하고자 마련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객관적 관점으로 우리역사 바로보기

서울대 허성도 명예교수 지평선아카데미에 초청

제564회 김제 지평선아카데미는 서울대학교 허성도 명예교수를 초청하여 14일 오후 3시 김제시청 지하대강당에서 '객관적 관점으로 우리역사 바로보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이날 강연에서는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과연 객관적인지에 대한 사실에 의문을 품고, 비판하고 문제제기만 하는 기존의 역사관에서 벗어나 긍정적 역사관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객관적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 역사의 상당 부분이 다시 보이며, 조선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강의를 진행 할 예정이다.

허성도 교수는 서울대 중어중문화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저서는 '쉽게 배우는 중국어 입문', '현대 중국어 어법 이해', '고전명상-생각' 등이 있다. 아울러 이날은 신중동 한우리 라인댄스의 댄스공연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강연분위기를 한층 돋을 예정이다.

배움으로 함께 행복하고 소통으로 하나 되는 김제 지평선아카데미 강연은 별도의 신청 없이 김제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16일 '술 빛는 날' 행사 개최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완주군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이 '박물관 술 빛는 날'을 운영, 교육생들이 직접 빛은 술을 시음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완주군은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에서 오는 16일 술 전문 교육생을 중심으로 우리 술의 우수성과 문화를 알리기 위한 박물관 술 빛는 날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박물관 개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술 관련 전문교육을 통해 배출된 교육생 또는 관심자들이 직접 빛은 술을 전문가와 관광객들이

시음해보고 평가해 보는 자리다. 행사로는 술 관련 사자성어를 활용한 '술술 4행시 짓기'와 '나만의 술 품평회'가 진행된다.

또 박물관의 특별한 카테일 체험과 수제맥주 및 다양한 국산와인 시음·판매행사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구이 주점을 운영해 구이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술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은 지난 2015년 10월 개관해 술과 관련된 역사와 문화를 담은 5만5000여점의 유물을 보유하고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상반기 현장점검

김제시(시장권대행 이후천)는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사업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김포종합사회복지관의 16개소 10개 사업에 대하여 제공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춘 시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서비스수요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직접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현장점검은 주로 이상결 제 내역 중 허위·부정결제여부 확인 등 결제원칙위반여부 및 기관운영,

제공인력관리, 이용관리, 서비스내용 등 운영관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점검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조치 후 제공기관에 사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책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김제시는 1,134여명 정도의 대상자가 서비스혜택을 받고 있고 90여명이 제공기관인력으로 일지리를 얻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은 높은 복지 수요 충족과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반드시 활성화 되어야 하며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제공기관 관리 및 보건복지부·전라북도와의 협조로 양질의 사업추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평선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